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상의 노이즈로서 바라본
잉여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윤 하

일상의 노이즈로서 바라본
잉여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윤 하

인 준 서

김윤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①

심 사 위 원 _____ ①

심 사 위 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본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작업한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 보고이다. 본인은 ‘일상의 노이즈로서 바라본 잉여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에 주목하고 이를 수집하여 아카이빙, 퍼포먼스, 수집된 오브제의 변형과 같은 방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금의 시대는 대량생산의 시대이자 과잉생산의 시대이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대량생산의 리듬에서 깨어져 나온 잉여가 생겨났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일상에 존재하는 잉여의 사물과 버려진 것의 흔적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 본인은 이와 같은 것들에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된 죽음의 불안을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인은 잉여의 사물과 버려진 흔적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그 사물들을 아카이빙, 퍼포먼스, 잉여 오브제의 변형 등의 방식을 통해 애도하거나 본래의 속성을 변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은 일상의 깨어진 리듬에서 발견한 위와 같은 사물이나 흔적에 새로운 규칙, 리듬을 생성하고 동시에 본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

위와 같은 현상들을 마주하는데 본인에게 주요한 개념은 ‘일상의 노이즈 (Noise of everyday life)’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이 위와 같은 사물이나 흔적을 일상에서 마주하고, 그것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 생성되는 일종의 현상이자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본인은 잉여의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이 이 일상의 노이즈를 통해 어떻게 예술적으로 전이되고 본인과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18년에 작업한 작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

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 관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첫째, 토니 크랙(Tony Cragg)과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의 작품을 통해 잉여의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에 관해 설명하고, 소음, 잡음의 개념과 음향학의 가리움 효과(Masking Effect)를 바탕으로 일상의 노이즈를 정의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수집된 오브제와 흔적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오브제와 흔적에 내재된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본문 2장의 작가들과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의 작품을 통해 설명하여 작품형성배경을 서술하였다. 둘째, 앞에서 설명한 노이즈가 생성된 잉여물과 흔적을 수집, 분류, 재구성의 형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작품표현방법을 나타내었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작품과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형성 배경	3
1) 잉여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 그리고 일상의 노이즈	3
2) 수집된 오브제와 흔적의 예술적 전이	6
3) 수집된 것들에 내재된 죽음과 불안	11
2. 작품 표현 방법	15
1) 잉여 오브제와 흔적에서 노이즈 발견하기	15
2) 노이즈로 수집된 것들을 감각적으로 재구성하기	17
3) 아카이빙 방식을 통해 죽음과 불안 극복하기	19
3. 작품 분석	22
III. 결론	55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O시리즈_O.Collision, 싱글채널비디오, 00:01:30,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스크린으로 설치, 2016 23
- 【작품2】 유기적 경계의 문(The Gate of Organic Boundary, John 10:7-9),
OPP 주황테이프, 문, 글자 인쇄물, 가변설치, 2016 26
- 【작품3】 그때의 접시 그리고 지금의 접시, 싱글채널비디오, 00:12:29,
가변설치, 2017 29
- 【작품4】 감각수집 프로젝트, 910x1820(mm) 합판 지지대에 모니터 설치,
퍼포먼스 영상을 3면으로 찍은 3채널 비디오 영상으로 4공간에서
찍은 영상을 3~4분 이내로 반복, 2018 32
- 【작품5】 시공간 메모장, 1500x1500x750(mm), 종이 외 복합 매체, 종각,
광화문, 미아리 텍사스, 성북구 아파트 등의 공간에서 수집한
자료와 과거 만상 수집 잠상기록 프로젝트의 자료를 연구
아카이빙 형식으로 설치, 2018 36
- 【작품6】 진리와 허위의 방, RGB미러볼, 타임스위치, 회전기계, 포그머신,
자동분사기, 가습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이 일정한 시간의

규칙대로 ON/OFF 무한반복, 공간 가변설치, 2018	38
【작품7】 A를 위한 노동요, 2채널비디오, 00:06:59, 가변설치, 2017	41
【작품8】 식물초상(Plant funeral), 싱글채널비디오, 00:07:44, 가변설치, 2017	44
【작품9】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낙엽 - Series	
가.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낙엽 I , 2700X600X50(mm), 머리카락, 나뭇잎, 패트릿디쉬, 포맥스, 2015	48
나.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낙엽 II , 사진드로잉, 가변설치, 2015 ..	49
다.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낙엽 III, 싱글채널비디오, 00:01:00, 가변설치, 2015	50
【작품10】 만상수집 잠상기록, 싱글채널비디오, 00:04:58, 2018	53

도 판 목 록

- 【도판1】 주기음의 파형 예시 이미지, 2018, 본인 소장.
- 【도판2】 비주기음(노이즈)의 파형 예시 이미지, 2018, 본인 소장.
- 【도판3】 토니 크랙(Tony Cragg), <스펙트럼 *Spectrum*>, 1985, 플라스틱에 도색, 280x2000x3000(mm), 출처:<http://www.tony-cragg.com/?/sculptures/1985-1989>(2018년 12월 20일 검색).
- 【도판4】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 <집 *House*>, 1993, 버려진 집을 콘크리트로 본뜬,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VueGIKQTE8>, 유튜브 영상 캡처(2018년 12월 20일 검색).
- 【도판5】 백색소음 예시 이미지, 2018,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B%B0%B1%EC%83%89_%EC%9E%A1%EC%9D%8C(2018년 12월 20일 검색).
- 【도판6】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페르손 *Personnes*>, 2010. 익명의 사람들의 옷가지들, 크레인, 69인의 심장박동 소리, 출처:<https://histoiredelartai2.wordpress.com/2016/12/02/personne-christian-boltanski-momumenta-2010/>(2018년 12월 20일 검색).

【도판7】 _____, <기념비 *Mounument*>, 1990, 금속 비스킷 박스와 전구

조명기구 그리고 젤라틴 실버 프린트인쇄물,

출처:<https://www.mfah.org/art/detail/17657?return>

Url=%2Fart%2Fsearch%3Fartist%3DChristian%2BBoltanski(2018년

12월 20일 검색).

I. 서 론

“기계는 돌고 또 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야 한다.
영원히.
기계가 멈추면 죽는 거나 다름없다.”¹⁾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기계문명을 이루게 된 지금의 사회는 대량생산의 시대이다. 대량생산의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복제품이나 쉽게 쓰고 버려지는 임시용품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잉되어 만들어지는 과포화된 사물이나 무엇인가 있다 사라진 흔적들은 일반적인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잉여물이다. 본인은 당연하게 지나가는 이와 같은 사물이나 흔적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왜 그것들이 잉여물이 되었고, 누가 그들을 잉여로 만들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본인은 잉여물(Surplus Object)과 흔적(Abandoned trace)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내재된 죽음의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잉여물과 흔적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아카이빙, 퍼포먼스, 수집된 오브제의 변형, 애도하기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전이시켰다. 잉여의 소재와 흔적을 사용한 선행 작가로 토니 크랙(Tony Cragg)과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가 있다. 그들이 수집한 오브제와 흔적을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풀어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본인은 이러한 잉여물과 흔적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노이즈(Noise of everyday life)’가 생성된

1) Huxley, Aldous. 『멋진 신세계』. 정승섭 역, 해원출판사, 2008, p.65.

다고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의 노이즈’를 소음, 잡음의 특성과 음향학의 가리움 효과(Masking Effect)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집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예술적 전이를 이루어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수집된 오브제와 흔적에 내재된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의 아카이빙 방식과 앞서 말한 작가들의 방식을 토대로 본인이 작품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일상에 버려진 잉여물이나 보이지 않는 죽음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에 내재된 죽음과 불안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형성배경을 설명하고, 본인의 작업을 중심으로 작품표현방법을 서술했다. 이와 같은 시각적 표현 및 담론들을 연구함으로써 본인의 작품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잉여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 그리고 일상의 노이즈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계는 기술의 혁명을 이뤄냈다. 기계문명이 생기면서 생산의 기술이 발전했고, 그로 인해 사회는 대량생산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대량생산의 시대 속에서 사회는 끊임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반복된 생산을 하다 보면 남아 버려지는 것들이 생겨난다. 이를 잉여물이라 한다. 이 잉여물은 잉여 사물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사물은 물건이라 할 수도 있지만 죽은 사물 혹은 쓸모없어진 물건으로도 읽힐 수 있다.²⁾ 이 잉여물들은 대량생산의 패턴 리듬에서 벗어난 외부자이자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이 잉여물들은 버려지고, 자연스럽게 흔적을 남긴다. 본인은 이러한 잉여물에 주목한다. 왜 이러한 잉여물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 잉여물의 출처는 어디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잉여물과 흔적을 작품으로 다뤘던 작가로 토니 크랙(Tony Cragg)과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가 있다. 크랙은 주로 산업 사회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작품을 만든다. 그는 뒤상과 달리, 일상의 버려진 오브제들과 그 파편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인간과 물질 또는 문명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오브제 작가로 평가된다.³⁾ 화이트리드는 주로 버려지는 공간이나 일상적인 공간을 본 때

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두산동아, 1999, p.3119.

작품을 만드는데, 이를 통해 내부와 외부로 전환함으로써 내부에 남겨진 흔적들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버려진 공간을 재구축하고, 흔적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한다. 본인은 위의 작가들과 비슷한 관점에서 일상의 잉여물과 흔적들을 바라본다.

위의 작가 중 특히 토니 크랙이 버려진 오브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본인이 잉여물과 흔적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크랙에게 오브제는 자석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것은 예술가 즉, 크랙을 끌어당기며, 그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드러내게 한다. 이와 같은 오브제의 자석과 같은 기능을 데모스테네스 다베타스(Demosthenes Davvetas)는 ‘마력’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이 ‘마력’과 대응하는 본인의 개념으로 ‘일상의 노이즈(Noise of everyday life)’가 있다. 이 일상의 노이즈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잉여물과 흔적에서 발생하는 어떤 감정이나 신호를 말하는데, 무엇인가를 마주할 때 그 순간을 변화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크랙의 마력은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힘과 같다면 본인의 노이즈는 상황의 변화를 느끼게 하여 주의를 끄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이즈(Noise)란 어느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지 않는 비주기음인 소리를 말하는데, 주로 사람이 느끼기에 불쾌한 소리를 말한다.⁵⁾ 노이즈는 주로 소음, 잡음⁶⁾으로 분류되며 각각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정의하는 일상의 노이즈의 경우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각각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음은 주로 가청 주파수의 영역에서 벗어난 소리⁷⁾를 말하는데 즉, 소리의 파형이 주기적으로

3)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도서출판 예경, 2000, p.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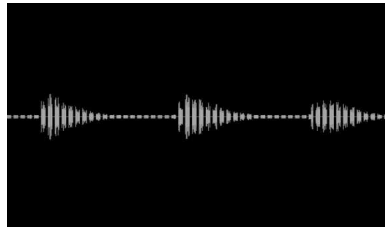
4) 박기웅, 『현대미술이론3』, 형설출판사, 2003, pp.87-88.

5) 오세진, 『심리음향학』, 시그마프레스, 2013,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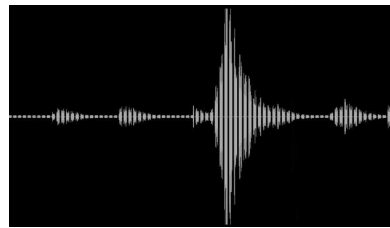
6) 소음과 잡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소음은 사람을 불쾌하고 시끄럽게 하는 소리이고 잡음은 사람이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소리라 한다. 위의 책, p.49.

7) 극초저주파수 소음부터 초고주파수 소음까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주파수별로 소음이 존재한다. 김호철 외, 『물리음향학 I』, 민음사, 1994, p.102.

반복되는 형태⁸⁾가 아니라 불특정한 상태에서 아주 작은 소리나 큰소리로 흐름을 깨는 것을 말한다(도판1,2).



[도판1] 주기음의 파형 예시



[도판2] 비주기음(노이즈)의 파형 예시

위의 도판처럼 일상에서 일정한 순간 중에 튀어 오르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 일상의 노이즈이다. 이는 소음의 발생 원리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본인의 일상의 노이즈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설지만, 매력적인 감각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생각은 음악연구원인 김경화의 생각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노이즈로 듣는다면 그 소리는 우리의 인식의 틀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소음으로 여겨진다. 반면 노이즈가 귀에 전혀 거슬리지 않고 심지어 아름답거나 매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질서 안으로 조화롭게 녹아들어 더 이상 소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⁹⁾

그녀의 주장처럼 본인이 일상의 노이즈는 일반적인 소음이 아니라 본인의 질서 안으로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신호와 같다. 이러한 일상의 노이즈를 통

8) 이를 주기음이라고 한다. 오세진, 『심리음향학』, 시그마프레스, 2013, p.48.

9) 김경화, 「노이즈의 역설= The Paradox of Noise : Is it the Realization of Utopia or the Imagination of Dystopia? 」, 『음악논단』, vol.38, 한양대 음악연구소, 2017, p.151.

해 본인은 일상의 잉여물과 흔적을 수집하고 이것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일상의 노이즈는 잉여물과 버려진 흔적을 마주할 때 생성되기도 하지만, 작품을 진행하면서도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노이즈의 특성 중 신호를 방해하여 시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잡음의 특성과 유사하다. 이에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항공기 소음, 공장 소음, 건축공사 현장의 소음 등의 외부 소음에 의해 교수의 강의 소리나 TV, 전화 등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현상인 가리움 효과(Masking Effect)가 있다.¹⁰⁾ 소리가 겹쳤을 때 본래의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생긴 소리에 집중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2개의 음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한쪽의 음이 다른 한쪽의 음에 의해 은폐되어 들리지 않는¹¹⁾ 현상을 말한다. 본인은 이러한 가리움 효과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며 기존에 있던 수집된 잉여물과 흔적들의 깨어진 속성을 아카이빙, 퍼포먼스 등을 통해 변형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그것들을 가리고, 이를 통해 새 규칙과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그 안에 내재된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낯선 상황을 연출하여 수집된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자 했다.

2) 수집된 오브제와 흔적의 예술적 전이

앞 장에서는 일상의 잉여물과 버려진 흔적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 발생하는 ‘일상의 노이즈’의 개념을 정의했다. 이어서 이 일상의 노이즈를 통해 수집된 것들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전이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앞 장에서 언급했던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잉여물과 흔적을 예술적으로 전이시켰는지 살펴보고,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예술적 전이를 이

10) 김호철 외, 『물리음향학 I』, 민음사, 1994, pp.171-183.

11) 김재수, 『소음진동학』, 세진사, 2013, p.66.

투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크랙은 일상의 소재 가운데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물 혹은 오브제 물질들을 활용하여 전혀 다른 이미지를 탄생시키거나 형태에 있어서 특수한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조형언어를 사용한다.¹²⁾ 이러한 형식의 예시로 오브제를 확대하거나 변형하고, 때로는 표면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부식시키기도 하는 등 기이한 형태로 변모시키고 그 오브제들을 늘어놓아 낯선 풍경을 연출하는 것 등이 있다.¹³⁾ 크랙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상의 버려진 오브제를 예술적으로 전이시켰다. 그의 작품 <스펙트럼 *Spectrum*>은 도시에서 수집한 쓰레기들을 상업적인 색채로 채색하여 각 요소가 가지는 기존의 기능적 속성을 지우고 동등한 물체로서 자리할 수 있게 하여 물질문명에 대해 돌아보게끔 했다(도판3). 이러한 작품을 통해 크랙이 예술적으로 변모시킨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도판3] 토니크랙, <스펙트럼 *Spectrum*>, 1985

화이트리드는 버려진 장소나 공간을 본뜬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을 재현할

12) 박기웅, 『현대미술이론3』, 형설출판사, 2003, p.84.

13)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도서출판 예경, 2000, p.165.

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형태로 변모시켰다. 그녀의 작업 <집 House>를 탄생
 과 죽음, 떠남과 귀환이 진행되는 장소로 상실이 실재하며 부재가 현전하는
 장소로 그려낸다(도판4).¹⁴⁾



[도판4] 화이트 리드, <집 House>, 1993

“이 조각들은 실용적인 물건과 일상적인 장소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능을 부정하고 공간을 딱딱한 덩어리로 만든다. 더욱 애매한 것은 이
 즉물적인 흔적들이 상징적 흔적, 특히 유년기와 가족에 대한 기억을 암
 시한다는 점이다. [...] 즉, 억압에 의해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 억압된 것의 회귀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존속하
 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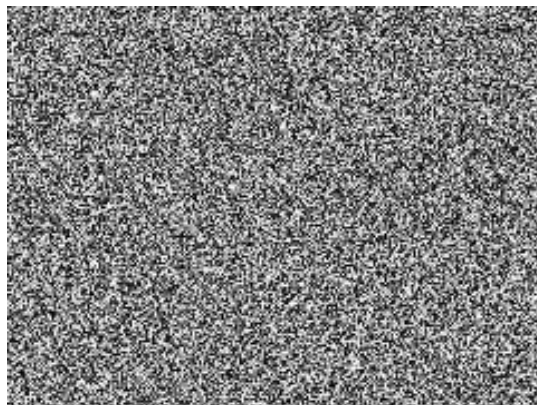
『1900년 이후의 미술사: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2007)책
 의 저자는 화이트리드의 작품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한다. 내부의 빈 공간을
 콘크리트로 본뜨면서 일정한 형태로 공간을 억압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간

14) Hal, Foster et al, 『1900년 이후의 미술사: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배수희
 외 역, 세미콜론, 2007, p.637.

15) 위의 책, p.637.

을 새로운 분위기 혹은 낯선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일상적인 공간을 틀 안에 가둠으로 내부도 외부도 아닌 그 경계에선 낯선 공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존속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화이트리드가 선택한 버려진 흔적의 공간은 일상과 일상의 이면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써 예술적 전이를 이뤄냈다 할 수 있다.

위의 두 작가의 작업은 기존의 일상적인 사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전이시켰다. 크랙은 형태의 변환으로써, 화이트리드는 공간의 전환으로써 낯선 효과를 만들어낸다. 본인의 경우에도 위의 두 작가처럼 수집한 것들을 아카이빙, 퍼포먼스, 오브제의 변형, 애도하기 등의 형식을 사용하여 작품으로 변환시킨다. 토니 크랙이 수집한 사물을 확대, 축소하거나 구멍을 뚫는 듯 기이한 행태로 변화하게 하는 행위와 레이첼 화이트리드가 공간의 전환으로 시공간을 뒤틀어버리는 방식이 본인이 말하는 일상의 노이즈 중 잡음의 특성과 비슷하다. 잡음의 특성과 섬광기억 개념의 설명을 통해 본인이 수집된 사물이 어떤 식으로 작품으로 변화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판5] 백색소음 예시

잡음은 정보의 취득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리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미지나 보이지 않는 신호에도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잡음은 TV 화면에서 백색잡음(White Noise)¹⁶⁾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다(도판5). 본인은 위의 특성이 수집된 것들이 작품으로 전이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는 기존의 신호를 흐트러트리는 잡음의 특성으로 인해 수집된 것들의 본래 속성이 가려지는 역할을 취하게 해준다.¹⁷⁾ 그리고 잡음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일그러짐처럼 본인이 작품을 진행할 때 좀 더 감각적으로 수집된 것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본인은 버려진 오브제나 흔적을 수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변형하거나 퍼포먼스, 아카이빙, 애도하기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었다. 이에 덧붙이는 개념으로 인지심리학의 ‘섬광기억(Flashbulb memory)’¹⁸⁾이 있다. 이 섬광기억의 특성은 “사람들이 과거 사건에 관한 기억을 보고할 때 어떤 것을 생략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것을 왜곡시키거나 변화시킴, 어떤 경우에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하기 조차한다.”¹⁹⁾라고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잡음의 흐트러트림과 같이 섬광기억에서의 왜곡된 기억도 유사한 예로 들 수 있다. 본인의 작품도 무엇인가 생략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던 이야기들까지 함께 들어온다. 이러한 기괴한 홀트림에 의해 생성된 작품들은 작품 자체가 노이즈가 되기도 하며,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패턴이나 규칙을 생성하기도 한다.

위의 개념들을 통해 본인은 수집된 것들을 예술적으로 전이할 수 있었다.

16) 화이트노이즈는 단위 주파수대역(Hz)에 포함되는 성분의 세기가 전 주파수에 걸쳐 일정한 자음을 말하며 옥타브 3dB씩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김재수, 『소음진동학』, 세진사, 2013, pp.26-27.

17) 이는 1장에서 언급했던 가리움 효과와 같다.

18) 충격적이고 대단히 정서적인 사건 주변이 상황들에 관한 개인의 기억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책에서는 9.11 사건과 같이 매우 큰 사건을 다루며 설명하지만, 본인의 경우 일상의 사소한 상황에서 노이즈로 인해 다가오는 낯선 충격을 이에 빗대어 설명했다. Goldstein, E.Bruce, 『인지심리학』, 도경수, 박태진, 조양석 역, 세계이지러닝코리아, 2016, p.257.

19) 위의 책, p.26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에 수집되었던 일상의 리듬에서 깨진 사물이나 그 흔적들은 새로운 형식이나 형태로 가리어지고 그로 인해 새로운 리듬과 패턴을 가지게 된다. 이는 본인과 수집물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상호적 작용을 하며, 이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예술적인 감각과 상상을 일으키는 매개로써 작용한다.

3) 수집된 것들에 내재된 죽음과 불안

앞서 발견한 잉여물들과 흔적에는 어떠한 죽음의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잉여물과 흔적은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특성을 가졌고, 그것이 사라져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중심에서 벗어난 외부인으로서의 이 잉여물과 흔적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불안들이 내재하게 된다. 본문 2장에서 언급한 잡음의 성질을 지닌 일상의 노이즈가 기존 수집물의 속성을 가리우는 가리움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수집물이 발견 당시 가지고 있던 깨어진 리듬의 상태와 쓰레기, 잉여물이라는 속성들은 본인의 작업을 통해 가려지고, 아카이빙, 퍼포먼스 등의 새로운 형식으로 덮어지면서 수집물에 새로운 패턴과 리듬을 형성하게 된다. 본인은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해 어쩌면 소멸했을지 모르는 그 수집물들을 기록하고 변형시킴으로 그것들의 소멸을 가리며 새로운 층위의 것으로 탈바꿈시킨다. 본인은 이를 통해 수집물에 내재된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동시에 그 수집물을 통해 비추어지는 본인의 죽음의 불안도 극복하고자 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작가들의 작업에서도 자연스럽게 내재된 죽음의 불안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거나 상기시켰는지 알아보고, 예술적 변이 과정에서 아카이빙이라는 특정 형식이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크리스티앙 불탕스키의 작업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크랙은 물질주의로 인해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한 경고와 물질주의 속에서 생겨난 버려진 쓰레기에 관한 관심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사유를 끌어낸다. 즉, 쓰레기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연, 죽어가는 사회를 상기시키며, 이것들을 기억하고자 했다. 화이트리드는 버려지거나 평범한 장소를 본뜬을 통해 상실, 부재, 죽음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신체에 쓰인 역사의 흔적을 전달한다.²⁰⁾ 그들은 각각 오브제를 기이한 형태로 변형하거나 내부와 외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표현함으로써 낯설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이 이렇게 만드는 낯선 상황들은 위에서 언급한 가리움 효과와 유사하다. 위와 같은 낯선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죽음을 기존 형태와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사라져가는 것들을 사랑했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한편으로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추모의 방식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추모의 방식을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가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가 있다. 그는 아카이빙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오브제를 흔적의 오브제로 사용한다. 아카이빙이란 요식체계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문건들을 담고 있으며, 효력을 잃어 작동사니가 된 문건들을 모아둔 것을 말한다.²¹⁾ 즉, 쓰레기를 문화와 역사의 기록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의 작품 <페르손 *Personnes*>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옷가지들을 한 공간에 모아 산처럼 쌓아 놓았다(도판6). 볼탕스키의 작품에서의 옷이라는 오브제는 하나의 개체일 때는 어떤 의미가 없었지만, 이것이 모여면서 만들어진 형상들은 죽음의 흔적을 남긴 오브제로 변모한다. 마치 옷은 누군가 벗어놓은 허물이나 껍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인이 없는 유령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이 작품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이 옷들

20) Hal, Foster et al, 『1900년 이후의 미술사: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배수희 외 역, 세미콜론, 2007, p.637.

21) Spieker, Sven, 『빅 아카이브』, 이재영 역, 홍디자인, 2013, p.8.

과 그의 주인들에 대한 추모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사라졌던 기억이나 현상을 다시금 꺼내오게 하고 죽음에 대해 돌아보게 했다.



[도판6] 불탕스키, <페르손 *Personnes*>, 2010

본인은 불탕스키가 취하는 작품에 대한 태도와 방식이 비슷하다. 먼저는 흔적을 통해 흔적 안에 내재 되어있는 죽음의 불안에 대해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카이빙 방식을 통해 이 흔적들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유사하다. 그렇지만 본인과 불탕스키의 방식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불탕스키는 무의미의 사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흔적을 구현할 때 그 사물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고, 연극적으로 풀어내는 것에 반하여²²⁾ 본인은 실제의 흔적을 수집하여 그 안에 내포되어있는 본인과 연계된 불안과 죽음의 흔적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추모의 방식을 사용했던 그의 작품을 더 살펴보면 가상의

22) 박기웅, 『현대미술이론3』, 형설출판사, 2003, p.94.

흔적을 가지고 실재의 기억과 흔적을 불러모아 추모의 방식을 취하게끔 구성한 <기념비 *Mounument*>가 있다(도판7). 이 작품은 여러 경로를 거쳐 수집된 사진들에 특수한 효과를 가미하여 오래된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하여, 영정사진처럼 보이게 한 작업이다.²³⁾ 이러한 효과로 인해 이 작품은 누군가의 장례식처럼 그려진다. 그의 작업은 가상의 흔적이지만, 그것을 통해 실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로 인해 잊혀졌던 시대의 흔적이나 아픔을 떠올리게 하며, 그것들을 추모하게 한다.



[도판7] 불탕스키, <기념비 *Mounument*>, 1990.

불탕스키는 주로 아카이빙 방식과 연극적인 형식을 빌려 작품 속에서 추모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와 대비하여 본인은 노이즈를 통해 발견한 잉여물과 버려진 흔적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아카이빙하면서 일종의 박제를 시도했다.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그것들이 배열되면서 마치 제단을 형성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추모의 분위기를 일으켰다. 불탕스키가 이러한 형

23) 앞의 책, p104.

식에 사용하는 오브제는 직접 선택하고 선별하였지만, 본인은 노이즈를 통해 발견한 잉여물이나 흔적들은 싫든 좋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엮어졌다. 이 점이 그와 본인의 가장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집물들과의 불규칙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해 본인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과 죽음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고, 또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 삶을 나아가는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한다.

2. 작품표현방법

1) 일상의 오브제와 흔적에서 노이즈 발견하기

본인은 과도한 대량생산으로 인해 생긴 과포화된 일상의 잉여물과 버려진 흔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 ‘일상의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정의했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토니 크랙(Tony Cragg)이 오브제를 마주할 때 나타나는 ‘마력’이 있다고 했는데, 본인의 작품에서는 일상의 노이즈가 그의 마력과 유사하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크랙은 오브제에 주의력과 에너지가 쏠리게 하는 것을 ‘마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와 다르게 본인의 ‘일상의 노이즈’는 오브제나 흔적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을 변화시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신호이자 감각이라고 언급했었다. 【O(Orange) 시리즈_O.Collision】에서 이러한 노이즈가 발현한 때는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마주했을 때다. 우연히 발걸음이 닿은 성수동에서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발견했다. 처음 마주할 때 눈길이 갔던 순간

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으나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그 형태가 아름다워 보였다. 이와 같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이즈가 발생한 사물은 아름답거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렇게 쓰레기봉투를 수집하고 본인이 왜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아름답게 느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주황색을 쫓아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노이즈의 소음의 특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불특정한 순간 갑자기 신호의 변화를 일으켰던 소음의 특성처럼 본인에게 이 노이즈는 알 수 없는 때에 발현된다. 【그때의 접시 그리고 지금의 접시】는 【O(Orange) 시리즈】중 우연히 철거예정지역의 한 영역에서 수집하게 된 버려진 접시의 출처에 대해 찾아가는 프로젝트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철거예정지역에서 발견한 접시가 우연히 다르게 보이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접시를 찾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위의 작업들은 주로 오브제들을 발견한 경우인데, 버려진 흔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예시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쓸모없는 생각들을 수집하여 옴니버스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한 【만상수집 잠상기록】작품과 일상에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지나가는 감각들을 집중하여 수집하는 퍼포먼스를 한 【감각수집 프로젝트】가 있다. 【만상수집 잠상기록】의 경우 본인이 잠들기 전 갑자기 떠오른 수치스럽고 슬픈 기억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의도치 않은 튀어 오르는 기억들이 있는지 수집해보고 이를 재구성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노이즈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그 기억과 마주하는 순간뿐 아니라 이 작품에서 주요하게 느껴지는 그 감정 자체가 이 소음의 노이즈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감각수집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일상의 버려진 감각들을 낯설게 느끼게 되면서 이를 기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작업이다. 이

와 같이 본인이 작업을 시작할 때 마주하는 많은 상황에서 일상의 노이즈가 발생한다. 이 노이즈는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아름다움, 슬픔, 호기심, 분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치환되게 도와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은 한 가지 소재에 머무르는 작업의 방식이 아니라 형태를 불문하고 일상의 다양한 지점에서 노이즈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노이즈로 수집된 것들을 감각적으로 해체 및 재구성하기

본인은 일상의 노이즈가 발생하여 수집하게 된 사물이나 흔적을 그 자체로 두기도 하였지만, 그것들에서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해서 사물과 흔적을 해체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적용되는 이론으로 가리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잡음의 노이즈가 있으며, 이에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섬광기억이 있었다. 수집된 것들이 작품으로 나아갈 때 무엇인가 생략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던 이야기들까지 함께 들어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일컫는다. 본인의 작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노이즈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잡음의 노이즈는 신호를 흐트러트리 이미지의 변조를 만들기도 했는데, 본인의 작품【유기적 경계의 문】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O(Orange) 시리즈】에서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수집하고, 주황빛을 찾아다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발견한 철거예정지역의 임시경계의 흔적에서 출발하여 주황색 테이프와 문으로 임시공간을 만든 변주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발견했던 페인트 자국의 흔적은 본인이 경험한 기억과 결합 되면서 단순한 영역표시의 경계를 넘어 경계가 모호한 공간의 긴장감이 있는 진리를 찾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러한 변주는 비물질적인 형태로도 변형이 되는데, 주로 퍼포먼스 작업

을 통해 재구성된다. 【식물초상】에서는 깨진 화분을 성분별로 분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들을 한 장소에 방치하여 사람들이 그 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관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해가 질 때쯤 본인이 직접 장례식을 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끝마쳤다. 단순한 쓰레기였던 화분은 섬광기억의 특성처럼 본인이 그 상황이 실제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사물에서 보여지는 상황과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감각수집 프로젝트】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오감 중 프로젝트 당시 느낄 수 있던 시각, 청각, 촉각, 후각에 한정하여 수집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다. 본인은 하얀 가운을 입고 일상의 거리 안에서 이러한 감각들을 수집했었는데, 다른 작업들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상황 속에서 노이즈의 역할을 취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들은 감각적으로 풀어내 공간을 만든 【진리와 허위의 방】 작품이 있다. 이 작품에서 감각들은 섬광으로 전이되어 공간을 채우게 되고 이는 보이지 않는 감각의 이미지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더하여 연기와 빛의 만남을 통해 발생하는 빛의 이미지는 마치 노이즈가 발생하는 순간을 시각화한 듯 표현되었다. 여기서도 본인이 임의적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을 재조합하고 구성하는 행위들이 진행되었다. 【A를 위한 노동요】에서는 말린 멸치라는 잉여의 오브제가 투명한 물체랑 결합하여 완전히 낯선 물체로 변이되기도 하고, 퍼포먼스와 영상의 결합으로 낯선 충동을 일으킨다. 또한, 드로잉 작업을 통해 처음 만난 멸치에서부터 파생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나아가 말린 멸치라는 잉여의 특성을 가리우고 멸치라는 사물 자체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와 같이 잡음의 노이즈가 적용되는 작업의 과정들은 섬세한 감각의 변이를 일으키고, 본인의 감각이나 기억을 발견한 수집물에 투영시키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특성은 본인의 감각이나 기억으로 변이되면서 새로운 형태나 규칙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긍정적인 가리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의 작업에서 잡음의 노이즈가 작용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작업을 풀어갈 때 예술적으로 전이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동떨어져 보이는 행위와 오브제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로서 가리움 효과를 일으키는 이 잡음의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노이즈로 인해 이러한 특수한 전이가 발생되면서도 노이즈로 인해 이 작업들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3) 아카이빙 방식을 통해 죽음과 불안 극복하기

본인이 생각하는 불안은 주로 죽음에서 비롯된다. 본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 연약함과 허무함을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인은 보지 않기, 기억하지 않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상의 노이즈로 인해 깨지게 된다. 잊어버렸을 즈음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 노이즈로 인해 본인은 다시금 죽음과 불안 앞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본인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반대로 그것을 깊이 기억하여 기록하고, 그 기억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아카이빙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집된 오브제와 흔적을 낱낱이 기록한다. 그 과정에서 오브제와 흔적은 본인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된다. 해체되면서 본래 있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성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가리움 효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본인은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본인의 작품에서의 본래의 의미를 가리는 아카이빙 방식을 사용한 작품으로 【A를 위한 노동요】가 있다. 처음 입 벌린 채 말려진 멸치를 시작으로 멸치 이미지를 모으고, 멸치들을 모아 공간을 구성하고, 멸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드로잉으로 남겼다. 그리고 멸치를 실험하듯 투명한 소재와 섞어 상

상의 장면을 물질화했다. 마치 구전설화처럼 기록의 기록이 반복되면서 이야기는 변화되고, 처음의 이야기와 끝의 이야기는 아예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처음 멸치의 이미지를 시작으로 이 이야기는 사회의 이면을 다루기도 하고, 굉장히 비약하여 멸치설화²⁴⁾와 같이 상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오브제나 흔적에 내재한 불안을 해체하여 분산시키고, 아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끔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은 마치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듯 보인다. 이와 연결하여 감각의 분산을 일으키는 아카이빙에서 자연스럽게 애도의 아카이빙으로 이어진 작품으로 【식물초상】이 있다. 우연히 버려진 화분을 이동하던 중 깨져버린 화분에 대해 애도하고 재배열해 기록한 작업이다. 처음에는 깨진 화분에 대한 호기심으로 화분을 성분별로 정리하는 과정을 기록했는데 이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분류하는 행위가 되었다. 동시에 직접적으로 장례식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 애도하게 되는데 이는 죽음을 극복하는 태도로 취해지게 된다.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낙엽】은 일상 속에서 문득 머리카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빠지는 현상에 의문을 가지고 이런 현상의 이유에 대해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작업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추모의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머리카락과 나뭇잎을 살레라는 과학 실험 도구 안에 박제시키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함에 따라 마치 제단을 만든 듯한 효과를 주었다.

【시공간 메모장】은 【감각수집 프로젝트】에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록을 문서화하고, 그 기록의 내용을 심리학, 생리학적으로 분석하여 감각을 실험연구하듯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공간은 마치 기록들을 박물관화한 듯 구성하여 무가치한 버려지는 감각들을 중요한 가치의 기록될만한 것으로서 탈

24) 죽지 않는 멸치가 계속해서 자라서 사람보다 커져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지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설화.
백괴사전, “멸치”, <https://uncyclopedia.kr/wiki/%EB%A9%B8%EC%B9%98>(2018.12.15.)

바꿈시켰는데, 위의 작품들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위의 작품들은 주로 아카이빙을 통한 애도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 작품에서의 아카이빙은 애도뿐만 아니라 시공간 메모장이라는 제목처럼 이 기록을 통해 다른 것들로 전이될 수 있는 중간지점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공간 메모장(Visuospatial sketch pad)이란 인지심리학에서 시각정보와 공간정보를 담고 있는 기억의 중간지점을 말하는데²⁵⁾ 이러한 속성처럼 본인의 아카이빙은 시간, 공간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도구로써도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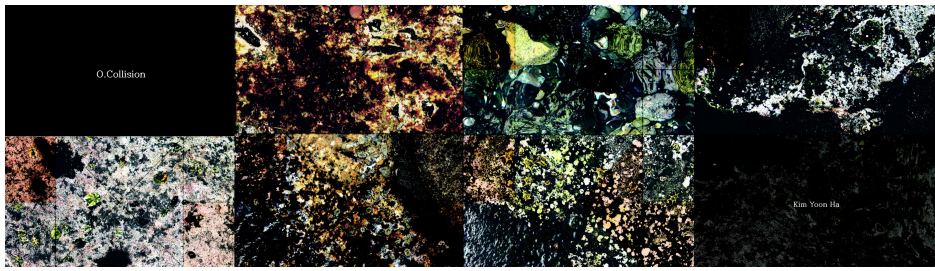
위에서 사용한 아카이빙 방식은 현재의 기록을 넘어 현재를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다른 정신의 시공간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중간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본인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잉여물과 흔적에 내재한 죽음과 불안에 대해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관객에게 본인이 느꼈던 노이즈처럼 그것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본인이 위에서 다뤘던 발견, 해체, 재구성의 과정을 지나면서 본인과 수집된 사물, 흔적 간에 새로운 형식의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은 깨어진 리듬으로 불안한 본인과 그것들 간에 안정을 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본인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일상에서 버려지고, 관심 가지지 못하는 흔한 순간들을 포착하고, 잠재적으로 내재한 사물, 흔적, 사람 안의 불안을 본인만의 규칙과 패턴을 통해 만들어진 리듬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연하게 인정하고 지나치는 일상에 반문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끔 유도한다.

25) Goldstein, E.Bruce, 『인지심리학』, 도경수, 박태진, 조양석 역, 세계이저리닝코리아, 2016, pp.160-161.

3. 작품 분석



【작품1】 O(Orange) 시리즈



【작품1】 O시리즈_O.Collision

【작품1】 O.Collision

연도 : 2016

크기 : 00:01:30, 가변설치

재료 : 싱글채널비디오, 주황색 쓰레기봉투

제작방법

1. 성수동에서 발견한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
2. 제주도 바닷가에서 발견한 돌을 촬영하여 기록한 뒤 이를 활용하여 돌의 속성이 보이지 않게 표면을 집중하게 하여 우주의 형상을 한 이미지의 반복적인 영상을 만든다.
3. 4개의 쓰레기봉투를 벽면에 설치한다.
4. 2번에서 만든 영상을 쓰레기봉투 위에 영사한다.

작품설명

우연히 발걸음이 닿은 성수동에서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쓰레기봉투가 그 이미지 자체로 아름다워 보였다.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현상을 ‘일상의 노이즈’로 정의했었다. 본인은 이러한 노이즈로 발견하게 된 쓰레기봉투를 수집하고, 주황빛이 있는 것들을 같이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수집했던 제주도에서 우연히 발견한 우주 문양의 돌과 성수동에서 발견한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결합하여 그 사이에서 오는 알 수 없는 충돌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던 작업이다. 깜박거리며 전환되는 돌과 반짝이고 주황빛의 쓰레기봉투가

결합 되어 노이즈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고, 최면 효과를 주는 것처럼
몽롱한 느낌을 준다. 본 논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O시리
즈에서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주황빛을 수집하고
모으면서 사진, 글 등의 기록을 남기고, 또 마지막으로 수집한 것을
위와 같이 섞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작품2】 유기적 경계의 문
(The Gate of Organic Boundary, John 10:7-9)

【작품2】 유기적 경계의 문(The Gate of Organic Boundary, John 10:7-9)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OPP 주황테이프, 문, 글자 인쇄물

제작방법

1. OPP 주황 테이프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한다.
2. OPP 주황 테이프로 공간을 만든다.
3. 공간의 한 부분에 문을 설치한다.
4. 공간의 가운데에는 글을 공중에 설치하고, 벽면에 글을 테이핑 한다. 이 공간 안에 있는 글은 읽을 수는 있지만, 바로 해석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의 글이 있어야 한다.

작품설명

O 시리즈에서 주황빛을 가진 것들을 수집하던 중 발견한 철거예정 지역의 임시경계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붉은색 스프레이로 만들어진 네모난 임의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느껴졌다. 바닥에 2차원적으로 표기된 그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공간이 보였다. 본인은 이러한 느낌을 바탕으로 주황빛의 감각을 가미하여 공간을 구성했다. OPP 주황 테이프로 만들어진 임의의 영역은 공간이면서도 공간이 아니다. 이 공간 아닌 공간에 문을 설치함으로써 좀 더 공간이 됨에

설득력을 부여하려 했다.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 임의로 설정된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OPP 테이프로 붙여진 영역을 지나쳐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글귀들이 벽면에 붙여져 있는데, 이는 해석하기 나름의 글자이지만, 본인은 그 글귀만 보고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글이다. 그렇기에 본인은 이 공간 안에서 신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 영역은 누구나 들어 올 수 있으나, 그 안의 글은 해석할 수도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영역을 구분 짓는 경계는 경계안과 밖에서 너무나도 유기적인 상태로 있으며 이 팽팽한 영역의 경계 속에서 문을 통해 하나의 통로를 열어 준 것과 같다.



영상 속 오브제 설치 이미지



【작품3】 그 때의 접시 그리고 지금의 접시

【작품3】 그 때의 접시 그리고 지금의 접시

연도 : 2017

크기 : 00:12:29, 가변설치

재료 : 싱글채널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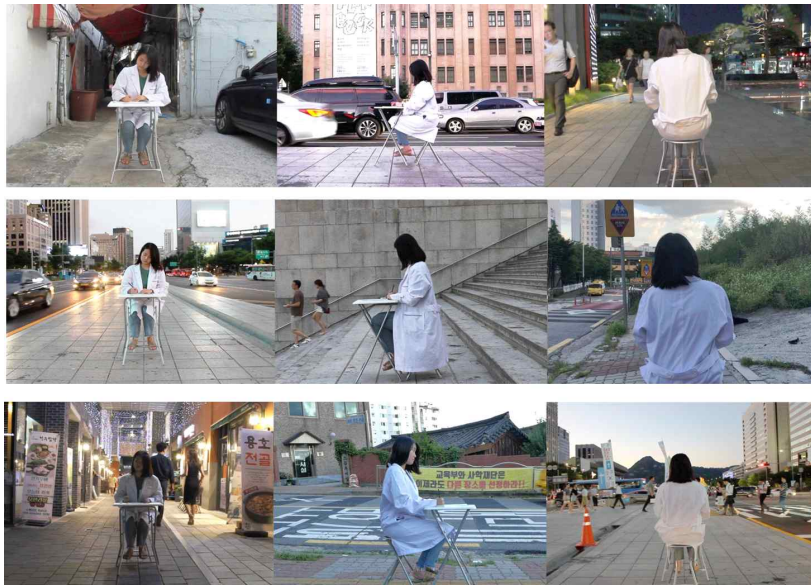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철거예정지역에서 버려진 접시를 주워온다.
2. 주워 온 접시의 출처를 찾기 위해 접시 도매시장을 간다.
3. 접시를 수집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다.
4. 접시와 똑같은 접시를 찾아 구매한다.
5. 접시를 구매하는 과정의 기록을 영상으로 정리한다.
6. 영상을 연결하여 편집한 후 상영한다.
7. 동시에 새로 구입한 접시와 주운 접시를 유물이 발굴된 느낌으로 설치한다.

작품설명

철거예정지역에서 주워 온 접시의 출처에 대해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다. 우연히 수집했던 접시의 뒷면을 보다가 Made in Korea 라는 접시의 출처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접시는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접시의 속성과 사용처, 사용 시기 등을 알기 위해 접시 도매시장을 찾았다. 도매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접시가 약 20년 전에 유행했던 접시임을 알게 되고, 접시의

소재, 유통방식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접시가 짝퉁 접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접시의 출처 찾기 프로젝트에서 버려진 접시의 출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특성 안에서의 접시, 짝퉁을 소비하는, 유행에 의해 소비구조가 바뀌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접시의 원형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찾을 수 있었다. 관심 가지지 않은 보이지 않은 유통경로 속에서 쏟아지는 잉여물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접시는 잉여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모호한 접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작품4】 감각수집 프로젝트

【작품4】 감각수집 프로젝트

연도 : 2018

크기 : 00:12:29, 가변설치

재료 : 퍼포먼스, 3채널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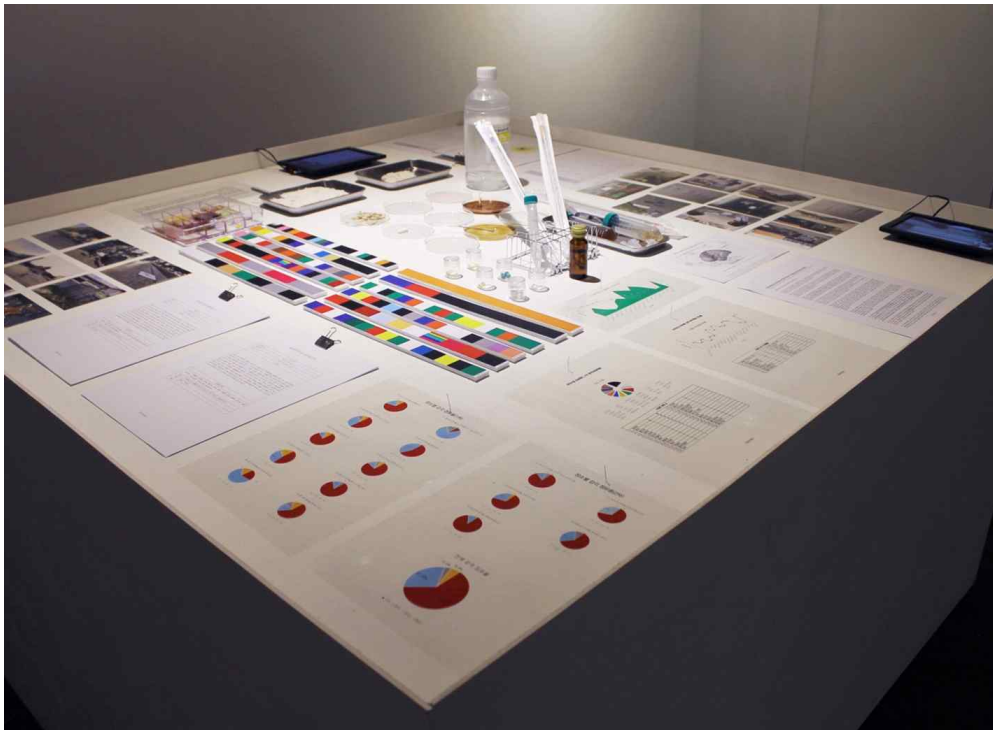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일상에서 지나다니는 거리 중 한 지역을 임의로 선택한다.
2. 임의로 선택된 지역에 한 공간에 임시책상과 임시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임시적으로 점유한다.
3. 퍼포먼스를 시작하기 전 3면의 방향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다.
4. 점유한 공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감각되는 감각들을 적을 수 있는 만큼 모두 적는다.
5. 4번의 모습을 카메라로 기록한다.
6. 일정 시간 후 임시책상과 의자를 철수한다.
7. 카메라로 수집된 내용은 영상으로 편집하여 기록한다.
8.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작품설명

일상에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감각들을 수집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너다보면 앞의 신호등을 보거나 목적지를 향해 시선을 두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걸어가는 주변에는 자동차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자동차의 불빛, 건물의 회색빛, 근처 빵집의 빵냄새

등 스쳐 가는 많은 감각들이 존재한다. 본인은 중요하지 않고, 흔히 스쳐 가는 감각들을 모아 그것들을 연구해보는 자세를 취한다. 본인은 일상 중에서도 본인이 반복적으로 지나다니는 지역 일부를 선정하여 그곳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일상적인 공간 안에 임시의자와 임시 책상을 두고 거기에서 감각되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적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퍼포먼스 진행 시 주변 사람을 피사체를 바라보듯 인식하고 적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본인과 일상의 상황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마치 본인이 일상의 공간 안에 노이즈의 역할을 취하는 듯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관찰하지만, 누군가는 없는 듯 지나치는 현상은 예상했던 결과보다 흥미로웠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큰 감각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버려지는 것들과 잉여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



【작품5】 시공간 메모장

【작품5】 시공간 메모장

연도 : 2018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종이 외 복합매체

제작방법

1. 감각수집 퍼포먼스 때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 각 감각별로 내용을 분류하고, 그것들의 특성에 따라 감각의 경로와 형태 등을 연구한다.
3. 가능한 다양한 방향으로 그 감각을 분석하여 연구 진행 결과를 내놓는다.
4. 그리고 그것들을 통계 내어 공간화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5. 설치 시에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함께 설치하고, 피짜 연구실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여러 독특한 연구 물품들을 같이 배치한다.

작품설명

감각수집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방향은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한 방향에서 깊게 들어간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일상에서 놓쳤던 감각에 대해 깊이 고찰해보기도 하고, 수집된 다양한 소재의 다른 방향을 찾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본 작업은 다음 작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자 과정이다.

본 작업에서 주요하게 연구했던 부분은 감각의 점유율이었다. 각 공간별로 어떤 감각들이 크게 감각되는지 그리고 감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함께 연구했다. 그리고 각 감각별로 실험하듯 시각의 경우 수집된 색상을 띠로 분류하고 후각의 경우 비슷한 향을 찾아 향을 만들어보고 촉각도 밀가루와 같은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각 감각에 대해 파고들면 들수록 기존의 감각과 분리되어 어떤 무중력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실제 수집된 것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카이빙 작업을 심화하면 할수록 가리움 효과가 심화 되어 본래의 의미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덧씌우는 듯하다. 감각들은 기억된 감각 자체로 무의미하든 유의미하든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작품6】 진리와 허위의 방

【작품6】 진리와 허위의 방

연도 : 2018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RGB미러볼, 타임스위치, 회전기계, 포그머신, 자동분사기, 가습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복합 매체

제작방법

1. 감각수집 퍼포먼스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공간의 시간을 구성한다.
2. 그리고 각 감각의 퍼센트만큼 감각을 재구현해 공간을 채운다.
3. 일정 시간만큼 규칙에 따라 ON/OFF 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다.
4. 시각의 경우 빛을 산란할 수 있는 포그 기계를 사용함으로 공간에서 빛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감각할 수 있게 구성한다.

작품설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한 작업이다. 퍼포먼스, 수집, 아카이빙의 과정을 거쳐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처음 연구하는 대상의 다방면을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작가의 방식대로 재구현한다. 이 작업에서는 공간으로 구현되었으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두어 관객들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간 안에서 구현되는 감각들은 작가가 임의대로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감각 했던 감각이 기억에서 감각에서 점점 소멸되고 변질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했다. 공간은 감각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구성되었지만, 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켜지고 꺼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빛의 소멸과 집약을 통해 우리가 정보나 인지할 때의 과정에 대한 물음을 제시했다. 즉, 빛이 있을 때는 몽롱하고 하늘을 나는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을 느끼다가도 갑자기 소멸 되는 빛을 통해 급격한 소격 효과와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디어나 삶에서 보여지는 많은 정보나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가려진 암전된 우리 삶의 진실, 실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작품7】 A를 위한 노동요

【작품7】 A를 위한 노동요

연도 : 2017

크기 : 00:06:59, 가변설치

재료 : 2채널비디오, 투명 소재 복합매체, 말린 멸치, 멸치 사진, 실험실 컨셉 구성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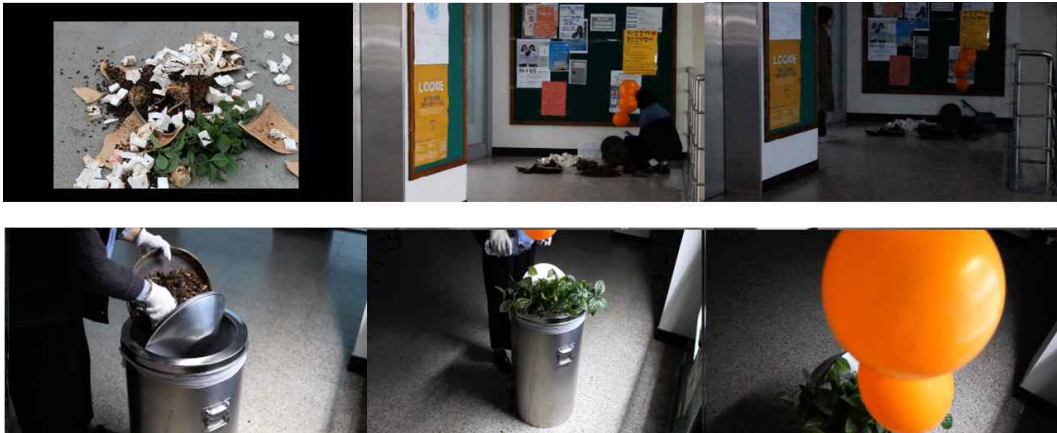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일상에서 집중되는 오브제들이나 상황을 영상으로 남긴다.(본 작품에서는 할머니의 멸치 다듬는 영상과 제주도의 바다의 모습이 사용되었다.)
2.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람이 아닌 전체적인 느낌과 배경에 초점을 맞춰 사람의 후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근무하는 모습을 촬영한다.
3. 근무지에서 볼 수 있는 전화기, 복사기와 같은 사무적인 물품들을 클로즈업해서 영상을 촬영한다.
4. 1,2,3번의 영상을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게끔 배치한다.
5. 파란 배경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뒤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하여 사람을 바다에 합성한다.
6. 멸치를 유리병에 떨어뜨리는 영상과 멸치를 떨어뜨리는 영상을 촬영한다.
7. 5,6번을 레이어링 한다.
8. 1-7의 영상은 2채널 비디오로 편집한다.
9. 2채널 비디오로 영상을 상영한다.
10. 이러한 영상을 바탕으로 멸치를 활용해서 멸치실험키트를 만든다.

작품설명

약 2년 전쯤 할머니와 멸치를 다듬던 때에 우연히 그 장면을 기록한 적이 있었다.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기록으로 할머니를 기록하였고, 동시에 멸치를 다듬는 중 입 벌린 채로 말려진 멸치들에 흥미를 느껴 그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본인은 대학원생 조교가 되었다. 대학원생 조교로 지내던 중 우연히 대학원생 조교라는 위치에서 겪는 불의한 일을 알게 되었다. 이에 과거에 멸치가 떠오르면서 멸치와 조교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멸치와 본인과 비슷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수집물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을 영상과 퍼포먼스로 전이하였다. 그리고 멸치에 대한 여러 단상들을 드로잉과 조형실험을 통해 재구성을 하였다.

멸치는 어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하찮은 존재이다. 멸치는 바다 생물 중에서 하위등급에 속하지만, 멸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에서도 중요한 물고기이다. 이러한 멸치의 특성과 노동자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영상에 담아 노동과 멸치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 중간에 나오는 멸치의 사진들은 죽음에 발악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를 먹고 먹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바다는 이러한 노동자, 멸치의 유토피아로 작용하면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에서 오는 허무함도 함께 보여진다. 함께 보여지는 할머니의 멸치 다듬는 영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노동의 숭고함과 그 외 다양한 노동에 관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더불어 본 제작영상의 배경음으로 쓰이는 카미유 생상스(Camille Saint-Saëns)의 ‘죽음의 무도’는 이러한 자들을 위한 노동요로써의 역할을 취하고 있다.



【작품8】 식물초상(Plant funeral)

【작품8】 식물초상(Plant funeral)

연도 : 2017

크기 : 00:07:44, 가변설치

재료 : 싱글채널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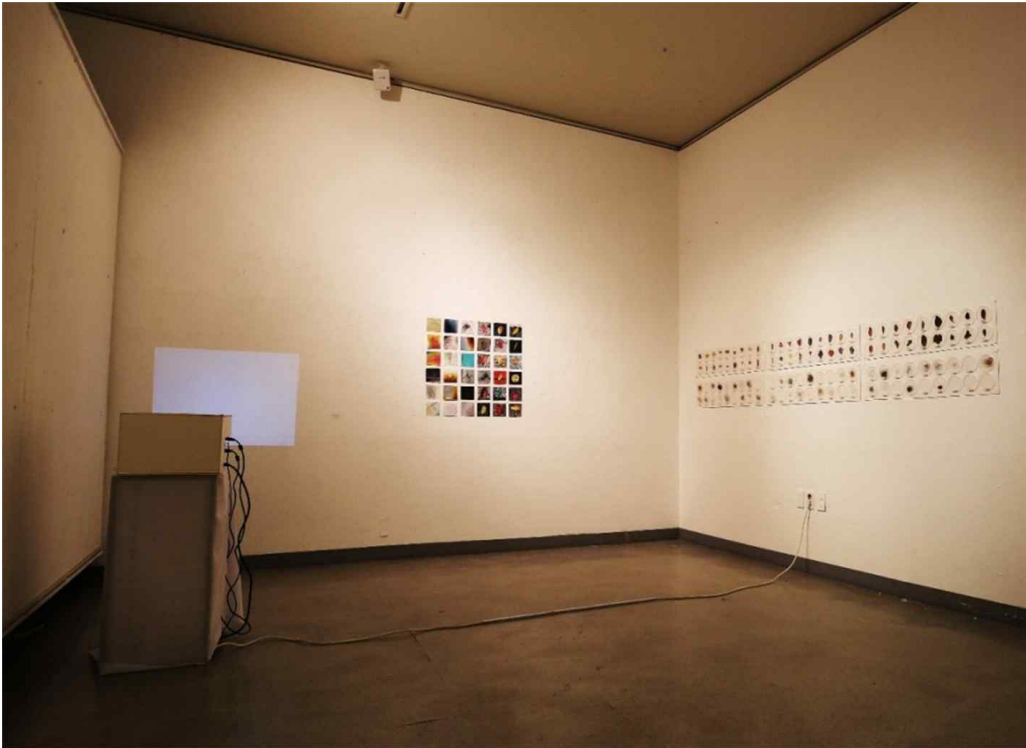
제작방법

1. 해가 지기 전에 버려진 화분을 줍고, 우연히 깨트린다.
2. 화분의 부속물들을 속성별로 분류한다.
3. 분류된 화분들은 깨진 장소 주변에서 애도할 수 있게 애도 구역을 만든다.
4.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애도의 주황 풍선을 걸어 둔다.
5. 해가 진 후 버려진 식물에 대해 장례식을 치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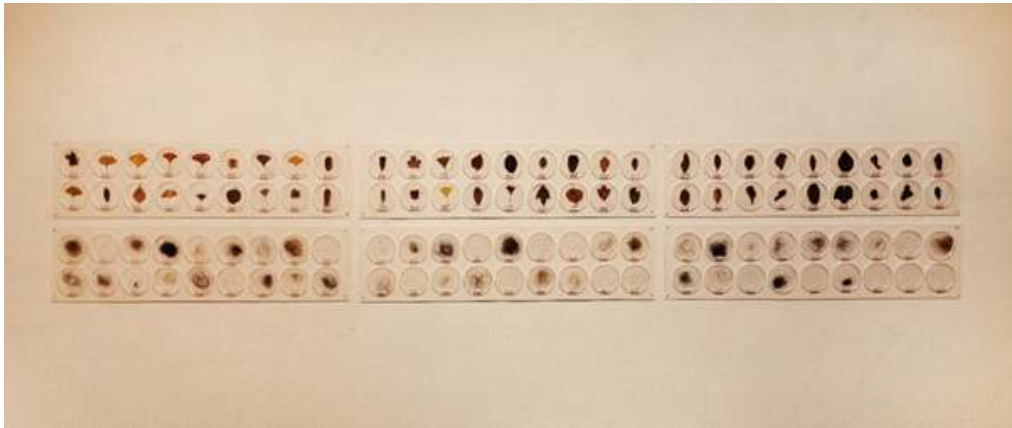
작품설명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한다. 본 화분도 그 쓰레기 중 하나이다. 우연히 이 화분을 옮기던 중 화분이 깨졌고, 본인은 깨진 그 순간에 슬픔, 당황, 시원함, 아름다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더불어 사물에서 느껴지는 죽음이라는 낯선 감정은 사물을 향한 애도로 이어졌다. 본인은 이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 깨진 화분을 화분의 속성대로 분류했다. 풀, 흙, 스티로폼, 화분 조각 등 화분이 가지고 있던 성분을 분류하며 화분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상상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기록하고, 그것을 위한 영역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

람들이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임시 묘지같이 구성 하였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화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화분의 죽음에 관심을 표했다. 본인은 애도의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던 주황색 풍선을 그 설치물에 걸었다. 해가 지고, 자판기의 열은 빛으로만 그 형상을 확인할 수 있을 즈음 본인은 그 화분을 위한 장례의식을 해주었다. 성분별로 차례차례 식을 치르며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의식을 치렀다. 사용하던 주인에게 버려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그때가 화분의 죽음이었을까, 아니면 깨어져 화분의 형태가 사라져 버린 그 순간이 화분의 죽음이었을까.



【작품9】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나뭇잎



【작품9】 가.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나뭇잎 I



【작품9】 나.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나뭇잎 II



【작품9】 다.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나뭇잎 III

【작품9】 탈소유된 머리카락과 나뭇잎

연도 : 2015

크기 : 가, 2700X600X50(mm)

나, 가변설치

다, 00:01:00, 가변설치

재료 : 가, 머리카락, 나뭇잎, 패트릿 디쉬, 포맥스

나, 사진드로잉

다, 싱글채널비디오

제작방법

가,

1. 머리카락 수집 키트와 설문지를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머리카락 및 사진을 수집한다.
2. 나뭇잎은 동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개체가 되며, 동마다 1개씩 수집하여 머리카락 수집 개수와 맞춘다.
3. 포맥스 판에 머리카락과 나뭇잎을 고정한 후 패트릿 디쉬를 접착제로 붙여 고정한다.
4. 완성된 포맥스 판은 일정한 높이와 너비로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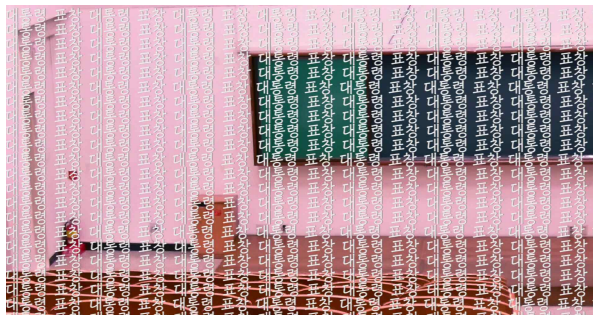
1. 가에서 수집된 머리카락과 나뭇잎 사진들을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작가가 임의로 느껴지는 색감을 넣어 새로운 드로잉을 생성한다.

다,

1. 가와 나를 통해 느껴진 이질적인 순간에 대해 영상으로 표현한다.
2. 나뭇잎이 떨어지는 영상을 수집한다.
3. 머리카락이 빠지는 영상을 수집한다.
4. 나뭇잎과 머리카락이 빠지는 영상을 교차시켜 편집 후 혼란스러운 상태를 느끼도록 한다.
5. 영상을 확인 후 상영한다.

작품설명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체의 것을 본인의 생각대로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되었다. 본인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 당연히 느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에서 포착한 감정을 설문지 및 키트를 통해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과 제어 가능성에 대한 대답을 수집하였다. 나뭇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자연물로 대치하여 자연과 인간의 배설물을 통해 존재의 이질적인 감정을 경험하게끔 한다. 사소한 현상 속에서 개인, 신체, 자연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물음으로 이어진다.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본인은 그렇지 못함에 대해 낯섬을 느끼면서도 함께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그러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함을 보며 ‘나’는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작품10】 만상수집 잠상기록

【작품10】 만상수집 잠상기록

연도 : 2018

크기 : 00:04:58, 가변설치

재료 : 싱글채널비디오

제작방법

1. 일상에서 갑자기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잠생각, 쓸모없는 생각들을 수집한다.
2. 개인적 기록과 타인의 기록(약 10명)의 데이터를 모아 분류한다.
3. 수집된 데이터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 영상을 찍고 보관한다.
4. 새롭게 구성된 영상과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면을 재구성한다.

작품설명

일상에서 버려지는 생각들을 모아서 그것을 디스크조각모음하듯 다시 모아 새로운 이미지와 함께 재구성한 작품이다. 본인이 잠들기 전 갑자기 떠올랐던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시작으로 사람들도 같은 현상을 겪는지 또 겪는다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하여 수집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 쉽게 잊어지는 쓸모없는 생각들을 모아 그것들을 기록화시키고, 그것과 결맞은 이미지를 작가의 감각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고, 영화 방식으로 새롭게 꾸밈으로 잊어버린 기억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워졌던 기억의 새 형태를 만들어낸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이 일상의 노이즈로서 바라본 잉여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에 대해 토니 크랙, 레이첼 화이트리드, 크리스티앙 불탕스키의 작품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고, 더 나아가 수집된 오브제와 흔적에 내재된 죽음의 불안을 수집, 아카이빙, 재구성의 방법을 극복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더하여 잉여물이나 흔적에 나타나는 본인이 정의한 ‘일상의 노이즈’에 대해 음향학의 가리움효과, 소음, 잡음의 특성, 인지심리학의 섬광기억이론을 참고하여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일상의 노이즈에 대해 정리하자면 본인의 노이즈는 크게 2가지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 사물과 흔적을 발견하는 소음 형태의 노이즈가 있고, 둘째로는 수집된 사물을 다른 형태나 형식으로 변화시켜 가리움 효과를 일으키는 잡음 형태의 노이즈가 있다. 소음 형태의 노이즈는 이 흔적과 사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본인과 개체 사이의 공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잡음 형태의 노이즈는 본인이 수집한 개체들을 흐트러트려 기존의 특성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퍼포먼스나 수집물들의 변형과 같은 재구성은 이 두 번째 노이즈로 인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노이즈는 사물을 발견할 때뿐만 아니라 작품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O(Orange) 시리즈】와 【그 때의 접시 그리고 지금의 접시】 작업에서 오브제에서 발견된 노이즈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감각수집 프로젝트】, 【만상수집 잠상기록】을 통해 흔적을 통해 발견된 노이즈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유기적 경계의 문】, 【식물초상】을 통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작업을 알 수 있었으며, 【A를 위한 노동요】, 【진리와 허위의 방】을 통해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생기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표현함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을 마치며 자신의 작품을 선행 작가 및 관련 이론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작업의 계기와 표현방법 등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비가시적이었던 ‘일상의 노이즈’라는 개념을 조금이나마 뚜렷하게 정의할 수 있었다. 이 일상의 노이즈가 작품에 적용되는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시각적, 정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감각하고 기억하는 등의 과정 등을 통해 불안함이 발현되는 지점의 시초를 찾아가는 연구 또한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다양한 방향의 관점에서 작품을 구성하고 표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저서》

- 김재수. 『소음진동학』. 서울:세진사, 2013.
- 김호철 외. 『물리음향학 I』. 서울:민음사, 1994.
- 박기웅. 『현대미술이론3』. 서울:형설출판사, 2003.
- 오세진. 『심리음향학』. 서울:시그마프레스, 2013.
-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서울:도서출판 예경, 2000.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서울:두산동아, 1999.

《번역서》

- Foster, Hal et al. 『1900년 이후의 미술사: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배수희 외 역, 서울:세미콜론, 2007.
- Goldstein, E.Bruce. 『인지심리학』. 도경수, 박태진, 조양석 역, 서울:센 게이지러닝코리아, 2016.
- Spieker, Sven. 『빅 아카이브』. 이재영 역, 전주:홍디자인, 2013.
- Huxley, Aldous. 『멋진 신세계』. 정승섭 역, 서울:혜원출판사, 2008.

《국내외 학술지 및 정기 간행물》

- 김경화. 「노이즈의 역설= The Paradox of Noise : Is it the Realization of Utopia or the Imagination of Dystopia? 」. 『음악논단』, vol.38, 서울:한양대 음악연구소, 2017.

《학위논문》

- 조지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작품에 나타난 존재의 양면성」.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기타자료》

- 백괴사전, “떨치” ,
<https://uncyclopedia.kr/wiki/%EB%A9%B8%EC%B9%9>(2018.12.15.)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surplus objects and abandoned traces as a Noise of everyday life

- On the foundation my work -

Kim, Yoonha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work that I worked for from 2015 to 2018. I focused on 'surplus object and abandoned traces' as a Noise of everyday life, collected them, reconstructed them in the same way as archiving, performance, and transformation of collected object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the present age is an age of mass production and an age of overproduction. People continued to produce more than they needed, resulting in a surplus that deviated from the rhythm of mass production. I pay attention to this phenomenon and wonder why surplus things in daily life and traces of abandoned things are created. I feel compassion for these things and at the same time feel

the instability of death inherent in it. To overcome this, I collect surplus objects and abandoned traces. And to perform such acts as mourning through the archiving, performance art, transformation of surplus objects, and transforming the original attributes. Through this, I want to create new rules and rhythms in the objects and traces found in the broken rhythm of daily life, and at the same time to establish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me to overcome anxiety and achieve stability.

In the above phenomenon, the main concept to me is 'Noise of everyday life'. This is a new definition of a phenomenon and a method that is created when you face everyday objects or traces. I explained how surplus objects and abandoned traces are transferred artistically through this 'Noise of everyday life' and how they relate to themselves.

This thesi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works based on works from 2015 to 2018. In chapter 1, introduces the research purpose and research method of my work. In chapter 2, I first explain the surplus objects and abandoned traces through the works of Tony Cragg and Rachel Whiteread, and defined the 'Noise of everyday life' through the concept of noise, noise pollution and the masking effect of acoustics. And I explain how artifacts and traces collected through them are transferred artistically. I will also explain how to overcome the anxiety of death inherent in the

collected objects and traces through the works of the authors of chapter 2 and Christian Boltanski. Through this, I described the background of the work formation. Second, the method of expressing the works is presented by analyzing the above-mentioned noise generated by the surplus and traces through the form of collection, classification, and reconstruction. In chapter 3, summarizes the work and contents of this paper and sought the direction of future work.